

유청량산록 재선성시(遊淸涼山錄 宰宣城時)

서지정보

서명	유청량산록 재선성시(遊淸涼山錄 宰宣城時)
저자(성명/자/호)	신지제(申之悌), 순보(順甫), 오봉(梧峰)
판사항	
책크기	
발행자	
발행년	
주제	기행일기
작성시기	미상
소장처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해제

「유청량산록(遊淸涼山錄)」은 『오봉문집(梧峰文集)』 권 6에 수록된 것으로 신지제(申之悌 ; 1562~1624)가 갑오년(1594, 선조 27)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청량산을 유람하고 기록한 기행문이다.

강효업과 금난수가 동행하였으며, 여행의 경로는 치원암, 안중암과 몇몇 봉우리를 간신히 보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넉넉히 유람할 겨를이 없음을 아쉬워하고 있으며, 김수온이 불교에 아부한 시를 보고 유자(儒者)의 죄인이라고 평가했으며, 퇴계선생의 유향을 흠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신지제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아주(鵝州), 자는 순보(順甫), 호는 오봉(梧峰)·오재(梧齋)이다. 1589년(선조 22) 증광문과에 갑과(甲科)로 급제, 정언(正言)·예조좌랑·문학(文學) 등을 역임하였고, 1613년(광해군 5) 창녕부사(昌寧府使)로 나가 백성을 괴롭히는 도적을 토벌, 민심을 안정시켜 그 공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고, 인조(仁祖) 초 승지에 이르렀다.

의성(義城)의 장대서원(藏待書院)에 배향되었다. 저서에 『오봉문집』이 있다.